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원 편집:양재웅

말씀과 삶(금요일양집회)

실질적인 체험

신발을 모르고 지러던 아이가 누군가 신다가 버린 신발을 얻게 되었다. 신발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이 아이는 자신의 발보다 작은 신발에 발가락을 뜨르려 넣어 신었다. 이 아이에게 신발이란 발을 아끼게 하지만 발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해 주고, 추운 날씨에 뽀글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다. 그 후에 발에 맞는 신발 한 켤레가 아이에게 주어졌다. 그래서야 아이는 '신발이 내 발에 맞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전까지 정성이라 고 생각했던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눈을 뜨게 해 준다. (빌 1:8~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삶이 끝날 때 천국에 간다는 진리를 아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다. (고후 5:1~2) 그러나 아픔을 참고 사는 우리는 아닌가?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단명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인에게 걸맞은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떠한 체험을 해야 한다고 늘 들으며 생활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때마다 실패를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아닌 척하면서 체면을 차리고 이유를 붙여 가면서 계속해서 싸우든지, 선택해야 한다. (고전 15:40~41)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상처를 받았다. (롬 7:22~24)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이 자유를 깨닫지 못한다. (요 8:32)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속박하고 가두어 두는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 없는 것이다. (요일 2:15~17)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를 체험하자. (롬 8:1~2)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들은 말씀에 중심을 둔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말씀에 익숙해지고 신학적인 지식도 생긴다. 그런데 말씀과 신학의 지식이 결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는 없다.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요 8:31~32, 36) 문제는 이렇게 말씀에 열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요 5:39~40) 복음을 충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우행어저침 쓰는 말이 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맞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떠나 종교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 체험하고 싶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삶은 어땠는가? 눈을 뜨면 성경을 붙잡고 새벽 기도회를 가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믿음을 담담하게 전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주님을 위하여 내 평생 생을 바쳐 일하랴고 결심한 후부터 처음에 지녔던 기쁨이 조금씩 새어나가 버린 것이다. (갈 1:6) 물론 여전히 성령도 가르치고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관중들의 기대에 맞춰서 연출하는 삶이 된 것이다. 그토록 좋아하던 말씀의 의미도 상실하였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었다. (갈 1:10) 때때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기쁨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습관이나 경쟁 또는 직업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는 분명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를 둘러싼 기독교단체나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세상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을 향하여 다시 외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으니 주님을 아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주여! 나를 자유케 하소서. 주님은 약속하셨나이다.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사람의 노에 내가 지쳤나이다. 나를 소성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자신이 진실로 죄인의 괴수임을 발견하게 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시작된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이제 더이상 세상과 사람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도구를 만족한다. 이 진리를 기쁨과 감사보다 책임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내가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 교회나 교파 또는 여러 가지 과거 경험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다른 것을 찾고 계신 분들, 말만 아닌 진자 진리를 찾아 방황하시는 분들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자. 성경이 계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믿기를 바란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복음으로 자라나는 천국일본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히브리서 13:19)

오늘 제1교육위원회(영어부+중등3부) 교사강습회(12:10, 제1교육관 507호)가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목표 중 '천국일본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23개 교회학교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각 태어난 아가들부터 어른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나 이를 동안 학생들은 함께 어울려 복음을 집중해서 배우며 십자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행 4:22) 또한 학생들은 세속에 물든 심령을 보혈로 깨끗하고 은총으로 가득한 중인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만큼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영적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히 3:13) 충

현의 모든 성도님은 각 교회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해 주시고, 협력에 필요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8년 제2차 청지기훈련

주제 : 두 세계 (요한복음 18:36)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일시 : 6월 20일(금), 저녁 7시 30분

WITNESS OF PAUL

⁽¹⁶⁾ But get up and stand on your feet; for this purpose I have appeared to you, to appoint you a minister and a witness not only to the things which you have seen, but also to the things in which I will appear to you;

⁽¹⁷⁾ rescuing you from the Jewish people and from the Gentiles, to whom I am sending you, ⁽²⁸⁾ Agrippa replied to Paul, "In a short time you will persuade me to become a Christian." ⁽²⁹⁾ And Paul said, "I would wish to God, that whether in a short or long time, not only you, but also all who hear me this day, might become such as I am, except for these chains." (Acts 26:16~29)

As a prisoner, standing before King Agrippa in defense for his life, Paul did not seek to protect himself, but instead chose to use this special occasion to witness the gospel. Most people would have taken this opportunity to attempt to prove their innocence, but Paul dedicated himself to sharing the good news. The gospel is for everyone. It is needed equally by the rich and the poor, the exalted and the lowly, because we are all sinners who will perish without the Savior. Romans 3:23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The entire human race was infected by Adam's sin, but thanks be to God for His grace,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God gives us an opportunity to change our destiny. Paul's life was changed when he met Jesus. Even though the Jews, his own people, wanted to kill him, he still persevered in his witness. What did he witness?

Paul witnessed how Jesus changed the destination of his soul. Before meeting Jesus, he stood against Him. He told the king, "So then, I thought to myself that I had to do many things hostile to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And this is just what I did in Jerusalem; not only did I lock up many of the saints in prisons, having received authority from the chief priests, but also when they were being put to death I cast my vote against them. And as I punished them often in all the synagogues, I tried to force them to blaspheme; and being furiously enraged at them, I kept pursuing them even to foreign cities." (Acts 26:9~11) Paul was a Jew who tried to follow every letter of the Law. He persecuted Christians to gain favor with God because he thought God would be pleased with his opposition. Then, one day, as he traveled to Damascus to pursue the Christians living there, he met Jesus, "at midday, O King, I saw on the way a light from heaven, brighter than the sun, shining all around me and those who were journeying with me. And when we had all fallen to the ground, I heard a voice saying to me in the Hebrew dialect,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It is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goads.'" (Acts 26:13~14) Paul heard Jesus' voice and asked Him, "Who are You, Lord? And the Lord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Acts 26:15) Paul accepted Jesus Christ as his Lord and received eternal life.

Paul witnessed how Jesus changed the direction of his life. He was walking with his eyes wide open, but he was in complete darkness and did not realize it. Jesus blinded him for three days, and when his eyes were opened he was baptized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cts 9:17~18) When Jesus called Paul and made him His witness, Paul became God's true servant. Jesus told him, "But get up and stand on your feet; for this purpose I have appeared to you, to appoint you a minister and a witness not only to the things which you have seen, but also to the things in which I will appear to you; rescuing you

from the Jewish people and from the Gentiles, to whom I am sending you, to open their eyes so that they may turn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dominion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n inheritance among those who have been sanctified by faith in Me." (Acts 26:16~18) Paul was not disobedient to this heavenly call. His obedience had brought him to this place, to the hands of his accusers. When he began to fulfill his calling, trouble came. Yet, he still kept preaching about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His life toward heaven helped him to see the opportunities, like explaining the gospel to the king.

Paul witnessed how Jesus changed the desire of his heart. He told the king, "I would wish to God, that whether in a short or long time, not only you, but also all who hear me this day, might become such as I am, except for these chains." (Acts 26:29) Whether or not he had time or even if it meant death, Paul wanted to proclaim the gospel. Preaching the gospel of Christ became his passion. Wherever one might place Paul, you can be sure that he would tell of God's great love and what happened at his conversion. His heart was full of Jesus Christ. He told the Philippians, "according to my earnest expectation and hope, that I will not be put to shame in anything, but that with all boldness, Christ will even now, as always,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Phil. 1:20) This was a man who took God's grace seriously. He belonged to Jesus and loved the gospel, "However, you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dee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But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Him." (Rom. 8:9) Paul had Christ's Spirit,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God. Listen to his request, "and pray on my behalf, that utterance may be given to me in the opening of my mouth, to make known with boldness the mystery of the gospel." (Eph. 6:19) Does the desire of your heart make such requests? Paul was a true Christian. In his closing to the Galatians, he said, "From now on let no one cause trouble for me, for I bear on my body the brand-marks of Jesus." (Gal. 6:17)

My dear friend, what about the destination of your soul? Where is it headed right now? Are you destined for heaven or hell? What about the direction of your life? Are you moving closer to God or further away? What about the desire of your heart? Are you driven by earthly money and physical pleasure or heavenly treasure and spiritual joy? Are you leading others to or from Christ? Please understand that those who truly belong to Jesus love the gospel, just like Paul. I hear and see so many people claiming to know Jesus, but very few who actually love the gospel. I hear and see so many church members witnessing about worldly news, but not about the good news. I hear and see so many excuses for why people do not listen to Jesus, but not many accounts about those who do. Wake-up and get serious about the things that make a difference! All else is passing away. 

바울의 증언

⁽¹⁶⁾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¹⁷⁾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¹⁸⁾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¹⁹⁾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16~29)



김성호 목사

죄인의 신분으로 아그립바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변호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특별한 상황을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구세주가 아니면 멸망 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3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6:23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최종 도착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영혼의 최종 도착지를 바꾸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영혼의 최종 도착지를 바꾸셨는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행법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 가서 박해하였고"(행 26:9-11)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율법의 엄정일회까지 지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애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던 도중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서 내가 소리를 들으니 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뒷발질하기를 네게 고생이니라"(행 26:13~14)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되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자로냐"(행 26:15)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는지 증언했습니다.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심지어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삼 일 동안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바울은 세계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행 9:17~18)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뒤 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행 26:16~18) 바울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리, 곧 자신을 고발한 자들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아그립바 왕 앞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바꾸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증언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행 26:29) 바울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심지어 그것이 죽음을 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분명히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였고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던지 들어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9)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곁잡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갈 6:17)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화와 영적 기쁨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참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바울처럼 복음을 사랑한다 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보았지만 실제로 복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뉴스거리에 대해 말하는 교인들은 아주 많이 보았지만 복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갖가지 이유를 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 깊이는 참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5. 28.)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사야 54:1~17)

하였다. 고난 받는 메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사야 53장에 이어서 이사야 54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참 모습을 기록하였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떠한가?

찬송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찬송이 있다. "영태까지 찬송이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사 54:1) 이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극한 외로움 속에서서의 찬송이다. 찬송의 근거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 복음을 전하다가 정신을 잃을 정도를 받은 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찬송하였던 바울과 실라가 되어야 한다. (행 16:22~25)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찬송의 제목이어야 한다. (행 15:9~10)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자라난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밭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할 산 곳이라 되게 할 것임이라"(사 54:2~3) 예루살렘방성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황폐한 성읍에서부터 시작된 찬송은 교회를 자라게 한다. 초대 교회는 순한 핍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초대 교회는 부흥하였다. (행 2:46~47) 박해를 견뎌왔지만 오히려 그들은 복음전도의 기의였다. (행 8:14~15) 사울은 변하여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자랐다. (행 11:25~26)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는 자라지 못한다. 오직 은총으로 자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과거는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과거를 잊어버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었고 파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사 54:4) 어두웠던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골 3:13~14)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사랑을 받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온 몸의 피를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라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곧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현대 교회는 부흥을 꿈꾼다.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현대 교회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다. (마 16:18·행 20:28)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로이며 십자가의 보혈만이 부흥의 원동력이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도하지 아니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였느니라"(사 54:5~9)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골 5:8,10)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적 전쟁 중이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사 54:10) 주님의 교회는 평안하다. 그러나 이것은 환난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은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골 8:38~39)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아름다움으로 꾸며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꾸며질 것이다. "너 곧고하며 광복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재복으로 네 몸 사이에 피하며 청옥으로 네 가슴을 감싸고 황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들을 만들고 네 창으로 다 보석으로 꾸밀 것임"(사 54:11~12)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치루는 교회에는 분별 상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꾸미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에 기초한 것 아름다움에 전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움이 있다. (행 2:20~22) 십자가의 은총이 이들을 가능하게 한다.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꾸며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신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의혼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살 것이며 하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임"(사 54:13~14)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신자들을 받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는 없다. (골 3:1~4)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는 신자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네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솟불을 붙여서 자기나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파하여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으니 너를 지리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총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묘이요 이는 네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사 54:15~17)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창 15:1)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행 5:27)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찬송이 넘친다. 성당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 비록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꾸며질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의 신자들의 삶은 은총으로 넘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세상의 부요함을 따르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망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따르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는다"(창 210장) 아멘.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자라나는 초등부



이성섭(장로, 초등부장)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섞은 믿음을 가르

치지도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비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는 말씀을 믿고 복음의 종들이 된 한국일꾼이 배울때기를 기도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잃은 양 찾기'와 '태산지 초정'을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현의 성도님들도 이들을 초등부 학생(초등학교 3~4학년)들을 섬기는 데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의 천국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매순간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어린이들도 2008년도에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는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신실한 일꾼이

무엇보다도 먼 거리에서 매주일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장년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에 도착하다 보니 어린 자녀들이 초등부예배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초등부예배 시간이 10시 30분임을 기억하고, 가급적 오전 10시 15분까지 도착하여 자녀들이 신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가장 귀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4~16)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



팀원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갈 선교지에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그곳은 아직 선교하기가 어렵다. 전도지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경찰들이 따라 다닌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언어 또한 8성조로 되어서 말하거나 듣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심 '차라리 다른 선교지로 가면 2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매우 편리하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나의 머리에 팍팍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팀원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그럴 즈음해서 팔아까지지 몸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선교는 갈 수 없는 조건들로만 구성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 판단과 생각들이 그 옛날 요나의 판단과 한 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요나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선교가기까지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가든지 안 가든지 주님의 계획과 뜻에 맡겼습니다. 결국 안수집사님을 팀장으로 권사님 세 분과 남자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산골짜기 외딴집들을 돌면서 세 번이나 경찰들과 보안군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팀원들은 담담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도 최후에는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이다. 당신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담담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의 담담한 복음전파로 서슬이 퍼런 경찰들의 마음이 녹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톨의 벌금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운전기사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하는 의문을 가졌고 마침내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미향(집사, 7교구 6지역)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일(월)-6월 10일(화)	11교구 3지역	김현배
6월 3일(화)-6월 11일(수)	5교구 2지역	이정태
6월 5일(목)-6월 13일(금)	7교구 5지역	송한천

기 간	팀	팀 장
5월 19일(월)-5월 27일(화)	13교구 5지역	조홍현

마가복음 강해

* 매주 월요일새끼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4:30~32)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다.(막 4:30) 그런데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게 지어지리라"(막 4:31) 이것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이다.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인간에 의해서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요 3:16)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지식, 경험과 노력으로 자라게 하려고 한다. 마치 불교인들이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무아의 경지를 지나 해탈할 수 있다고 믿듯이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기독교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재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요일 1:1~2) 그런데 한 기독교의 모순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이 시대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성경과 조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한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를 중시한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실제로 효(孝)관을 강조하는 유교적 사상에 힘이 몰려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하나님의 초점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딤후 2:4) 불신의 사람들에게 매우 무서운 진도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사 60:12)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마 4:17)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잊지 말자. 마치 갈라디아 교회처럼 말이다. 복음을 중시하던 갈라디아교회는 점점 복음과 율법을 혼합하여 극심한 영적 혼란에 빠졌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또다시 이전에 자신이 지켜온 전통과 율법을 가지치게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복음의 혼합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곧 팔 죄되지 않는 겨자씨의 더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살고 인재를 거두라 너희 모든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호 10:12)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지 말자.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딤후 1:15) 담담 가지런히 열매가 없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힘써야 한다. 이미 놀라운 공경을 보게 될 것이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져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임 만큼 되느니라"(막 4:32)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다. 복음전파!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씨를 온 세상에 뿌리는 것이다.(행 13:47~48) 세상이 뿌리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엡 3:6 ; 갈 3:14) 이것은 순전히 복음의 역사이다. 인간의 문화, 사상이 할 수 없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참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역사할 것이다.(사 55:5)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리"(사 60:22) 우리의 남은 삶이 겨자씨의 비밀을 간직하며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원한다. 아멘.

장세복(집사, 12교구)

예수님을 제일 먼저

충천교회에 오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상생활인 것처럼 그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부에 올라왔고 1학년 때에는 나름대로 अच्छ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아졌고 예수님보다는 친구들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일 아침마다 교회친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지난 1년 동안의 제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막내였던 1학년에서 어느새 3학년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학업에 대한 압박감과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 지난 1년이 너무 후회스럽고 회상스러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세상 속에서 허비한 시간과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겨울수련회 때 부흥회 시간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 세상 속에서 지냈어도 날 버리지 않고 다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진실으로 회개할 한 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믿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고3 생활뿐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유연(고등부)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희 구역에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집사와 권할남의 가정인데 이분들은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저희 구역에서는 이들을 대신자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님의 남편이 몸이 아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역에서는 심방을 통하여 기도하며 위로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얼마 후 퇴원을 하신 집사님의 남편을 지역장님과 함께 찾아가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자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교회에 오실 줄 알았지만 직장에 다시 출근한 뒤로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은 구역예배 차 집사님 댁을 방문하였을 때 남편 분이 계셔서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고마워하셨습니다. 그후 집사님의 남편을 집으로 초대하였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구역식구들은 실망하였지만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는지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딤후 1:16) 내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함을 원하시니라"(딤후 2:4)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경욱(집사, 20교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둘째 아이의 첫돌이 지난 무렵 가끔씩 아프던 허리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가 보았더니 '척추 미끄럼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고질병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된 거지? 전단이 잘못된 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아이들도 어린데.....' 라는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한방, 양방, 침, 뜸질 등 온갖 것을 다 해 보아도 차도가 없고 급기야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참혹한 현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저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권하셨습니다. 자기도 몸이 아팠으나 지금은 괜찮아졌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 병이 낫는다고? 교회 간다고 병 나을 것 같은데 세상사람 교회 안 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너나 가서 많이 나아라!"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니, 어디 와서 거짓말을 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교회든 절이든 나가서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절은 산속에 있어 너무나 멀었고 교회는 아파트 정문만 나가면 있었기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담요를 들고 5분 거리에 있는 교회까지 30여 분에 걸려 발을 내딛는 순간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는 찬양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굉장한 큰 죄인이 된 것 같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

문을 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음 문을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마음에 문이 어디 있지?' 한 주 동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저녁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마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감상선종양으로 무척이나 고생했지만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의 상황이 변한 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아픈 것도, 감상선종양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은 치유의 은총을 받으며 저는 병 고침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더 큰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빛진 자로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풍성케 하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시며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정환(원사, 18교구)

새가족양육부 5월 수료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족으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생활과 더불어 법에서 감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론 모든 일에 긍정적이게 되었고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싶고 더욱 듣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여락하시니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기정)

♥ 여친구와의 교제를 하면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첫 번째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는 용기와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죄가 있으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성일)

♥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넓으십니다. 그리고 무슨 죄든 회개 할 때 용서해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생활로 인해 항상 마음이 즐겁습니다. 무슨 일이든 좀 더 이해하는 여유로움 마음이 생겼게 되었습니다. (김계숙)

♥ 저는 오랜 세월 불교신자였습니다. 저의 딸이 '엄마를 72세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친하게 인사를 나누며 찬송을 부를 때도 즐겁습니다. 오랜 세월 게으르게 살았던 72세의 최연의 주님의 은사로 이제 다시 부지런해졌습니다. (박옥희)

♥ 충언교회를 섬기고 있던 아내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기로 하고 충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마 16:1b~17) 제가 알게 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아무 죄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시며 그분을 믿어오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의 은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복인이었으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셨나를 생각하게 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김성남)

♥ 예수님은 최 요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족으셨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뉘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난하지 않고 나의 생활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모든 생활에 힘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광현)

♥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우리 대신 피 흘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신 보혈의 피로 죄가 죄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만고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서 교회생활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범섭)

(편곡)

복음에 기초한 진(親)환경적 삶 ②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친환경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언가 거창한 운동이나 구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꺼져 있습니까? 한 대의 컴퓨터가 형광등 20개의 전력 소비량과 같습니다. 소규모의 모임을 갖고 있음에도 큰 장소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전등까지 모두 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소비되는 전기로 소수 개의 단기선교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물을 그냥 흘러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물 부족 국가 대열에 있는 우리 나라를 물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이 나오는 때에 필요한 전력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친환경적 교회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력소비비는 세계 7위입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석유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전력소비 세계 7위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석유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석탄을 조금이나마 생산했지만 이제는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대체 에너지원을 만들기 없는 이상 우리 나라의 에너지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전기절약의 문제는 교회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물론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에너지 소비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절약을 하면서 적절히 소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력소비 세계 7위에서 에너지절약 세계 1위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전등을 재배치하고 별도 스위치를 두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수도꼭지도 절전형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름철마다 켜는 국가적 전력난의 주원인이 되는 에어컨 사용을 줄이도록 선동기 사용을 권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친환경을 지향하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복음전파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행 1:8) 또한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친환경적 삶을 사는 성도들은 무언가 계층에서 얻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완전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 3:14)

(다음 호에 계속)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신도자	번호	성명	교구	신도자	번호	성명	교구	신도자	번호	성명	교구	신도자
1040	박광국	4	충남	1081	박세훈	23	대북	1122	최종진	1	고동부	1152	최종진	1	고동부
1041	서소정	24	충남	1082	장영선	18	충남	1123	최준선	3	충남	1153	최준선	3	충남
1042	황도인	4	충남	1083	김영희	13	충남	1124	김재현	23	충남	1154	김재현	23	충남
1043	박소인	8	충남	1084	이영자	5	충남	1125	최준선	23	충남	1155	최준선	23	충남
1044	조호준	19	충남	1085	신성호	6	충남	1126	최준선	23	충남	1156	최준선	23	충남
1045	최소은	1	충남	1086	김영희	1	충남	1127	김준호	23	충남	1157	김준호	23	충남
1046	이영호	2	충남	1087	김영희	2	충남	1128	이영희	8	충남	1158	이영희	8	충남
1047	최정민	11	충남	1088	김영희	15	충남	1129	최준선	4	충남	1159	최준선	4	충남
1048	최정민	15	충남	1089	김영희	22	충남	1130	최준선	4	충남	1160	최준선	4	충남
1049	김정민	19	충남	1090	김영희	22	충남	1131	최준선	2	충남	1161	최준선	2	충남
1050	이준원	11	충남	1091	최정민	22	충남	1132	최준선	11	충남	1162	최준선	11	충남
1051	김영희	19	충남	1092	최정민	3	충남	1133	김준호	2	충남	1163	김준호	2	충남
1052	최정민	11	충남	1093	최정민	3	충남	1134	김준호	2	충남	1164	김준호	2	충남
1053	김영희	7	충남	1094	최정민	25	충남	1135	김준호	2	충남	1165	김준호	2	충남
1054	김영희	7	충남	1095	최정민	25	충남	1136	김준호	2	충남	1166	김준호	2	충남
1055	최정민	8	충남	1096	최정민	25	충남	1137	김준호	1	충남	1167	김준호	1	충남
1056	김영희	20	충남	1097	최정민	25	충남	1138	김준호	1	충남	1168	김준호	1	충남
1057	서준원	12	충남	1098	최정민	25	충남	1139	김준호	3	충남	1169	김준호	3	충남
1058	김영희	9	충남	1099	최정민	22	충남	1140	김준호	3	충남	1170	김준호	3	충남
1059	최정민	7	충남	1100	최정민	22	충남	1141	김준호	3	충남	1171	김준호	3	충남
1060	최정민	7	충남	1101	최정민	22	충남	1142	김준호	3	충남	1172	김준호	3	충남
1061	최정민	3	충남	1102	최정민	22	충남	1143	김준호	3	충남	1173	김준호	3	충남
1062	최정민	20	충남	1103	최정민	22	충남	1144	김준호	3	충남	1174	김준호	3	충남
1063	김영희	9	충남	1104	최정민	8	충남	1145	김준호	2	충남	1175	김준호	2	충남
1064	이영희	13	충남	1105	최정민	8	충남	1146	김준호	2	충남	1176	김준호	2	충남
1065	이영희	24	충남	1106	최정민	8	충남	1147	김준호	2	충남	1177	김준호	2	충남
1066	최정민	24	충남	1107	최정민	13	충남	1148	김준호	2	충남	1178	김준호	2	충남
1067	최정민	17	충남	1108	최정민	8	충남	1149	김준호	2	충남	1179	김준호	2	충남
1068	최정민	5	충남	1109	최정민	8	충남	1150	김준호	2	충남	1180	김준호	2	충남
1069	이영희	13	충남	1110	최정민	8	충남	1151	김준호	2	충남	1181	김준호	2	충남
1070	이영희	13	충남	1111	최정민	8	충남	1152	김준호	2	충남	1182	김준호	2	충남
1071	최정민	15	충남	1112	최정민	8	충남	1153	김준호	2	충남	1183	김준호	2	충남
1072	최정민	18	충남	1113	최정민	8	충남	1154	김준호	2	충남	1184	김준호	2	충남
1073	최정민	22	충남	1114	최정민	8	충남	1155	김준호	2	충남	1185	김준호	2	충남
1074	최정민	4	충남	1115	최정민	8	충남	1156	김준호	2	충남	1186	김준호	2	충남
1075	최정민	12	충남	1116	최정민	8	충남	1157	김준호	2	충남	1187	김준호	2	충남
1076	최정민	4	충남	1117	최정민	8	충남	1158	김준호	2	충남	1188	김준호	2	충남
1077	최정민	5	충남	1118	최정민	8	충남	1159	김준호	2	충남	1189	김준호	2	충남
1078	최정민	3	충남	1119	최정민	8	충남	1160	김준호	2	충남	1190	김준호	2	충남
1079	최정민	6	충남	1120	최정민	8	충남	1161	김준호	2	충남	1191	김준호	2	충남
1080	최정민	2	충남	1121	최정민	8	충남	1162	김준호	2	충남	1192	김준호	2	충남

* 충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십시오. *

